

## 성인건강관리를 위한 간염의 예방 및 간호

최 영 희  
(이대 간호대학 교수)

우리나라는 1970년 이래로 HBs항원 검출법이 이용됨에 따라 Virus B형 간염의 감염을 및 보균자의 빈도가 높음이 밝혀졌다. 1971년 정완국의 연구에 의하면, 공혈자의 5.4%가 양성율을 나타냈고, 1975년 김정용에 의하면 의료종사자의 7.5%, 공혈자의 8.6%가 HBsAg 양성율을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1973년의 미국의 경우 0.1~0.5%, 열대 및 등남아 9~20%, 일본의 2.9% 양성율에 비하면 하국은 상당히 높은 율에 속한다 할 수 있다.

간의 염증은 대부분 viral infection으로 초래되며, 비록 그것이 toxic 또는 druginduced origin이던 간에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며 growth와 proliferation의 변화, 면역능력의 감소, 수액 및 전해질, 불균형, 대사교란, 세포에 부적절한 산소공급 및 지각과 조정에 변화가 온다.

Viral Hepatitis가 주로 통제되지 못한 공중보건문제로 간주되는 이유는 그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발병율이 drug use와 관련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고 특히 전염성이 강하고 회복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A형과 B형의 간염은 잠복기간과 전파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간조직내의 병리적 변화와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병태생리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바이러스 염증이 간세포에 염증을 초래하여 Kupffer cell의 Hyperplasia, Bile stasis, necrosis등을 일으키는 것이며, 그것이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

도의 특성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질병초기—대개 1~3주간 계속되며, 최근에 위장증상과 전신증상을 경험한다. 그중 전신 증상으로는 피로감, -전신결핵감, 체중감소, 식욕부진을 들 수 있고, 위장계 증상으로는 오심, 구토, 설사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간혈적으로 소양증을 호소할 수도 있다. 황달기 1~4일전에는 소변색이 검고, 대변의 색은 밝은색으로 변할 수 있다.

2. 황달기—황달은 황달기의 1~2주에 최고에 달하여 6~8주간 계속된다. 이 시기에는 위장계 증상은 없어지고, 황달 1주후에 간은 크기가 적어지고 postcervical lymph node와 비장은 커진다.

3. 회복기—대개 3~4개월 계속되며, 쉽게 환자는 피로를 느끼지만 일반적으로 상태는 좋다. B형 간염은 mortality가 A형보다 높으며, B형은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 타인의 절막 및 혈액과 접촉시에 전파된다. Virus의 전파는 수혈, 피부의 천자 및 피부의 손상, 입맞춤, 성교등으로도 가능하다.

의료인들은 혈액을 많이 다루며, 특히 수술, 분만, 혈액투석시에 B형 간염환자와 접촉이 높다. 그 외에는 소변, 월경, 타액, 대변등으로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인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인이 보균자로서 환자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염원, 전파경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자를 대하는 의료인들은 과거에

## ▣ 지면 보수 교육

간염을 앓았던 환자, 다량의 수혈을 받은 환자, 만성 간질환 환자, 만성 신부전 환자, 백혈병 등의 환자에게는 일상적으로 HBsAg 확인이 필요함을 인식해야만 한다.

간염환자의 간호는 그 발병기에 따라 1, 2, 3, 4차 간호로 구분하여 중요간호문제를 뽑아내기 위해 신체검진, 간호력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

### 간 호

#### 제 1 단계 간호

간염은 사계절 모두 발생하고, 모든 연령층에 발생한다. 그리고 drug addict는 B형 간염과 관계되는 High risk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는 주사바늘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위험을 조려할 수 있다고 사려된다.

이때의 문제진단은 "Control of the spread of the disease"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중심으로 간호계획을 하고 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HBsAg에 의한 Blood Screening을 시행하므로서 B형 보균자를 색출하고, 환자에게 주사기, 바늘, 정맥액병, 주사주입세트 등의 일회용 기구를 사용하며, 사용한 기구는 고압멸균소독하는 것이 좋다. 환자의 혈액, 분비물, 대변 등에 접촉을 할 때는 직접적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장갑을 사용하고 대개 대변은 오염돼 있으므로 바이러스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환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수혈을 금지시키고 임신중, 투석중 및 수술전에 HBsAg를 위한 혈액검사를 하며, 간염이 생겼을 경우에는 human immune serum globulin (ISG)를 5ml정도 주사할 놓는다.

#### 제 2 단계 간호

이는 전구기때의 간호를 말하는 것으로 약 1~3주 계속되는데 이때 감염성이 제일 높다. 이때는 신체적 변화가 적으므로 환자는 진찰을 잘 받지 않으려 하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 간호사정은 주로 병력, 신체검진

및 임상검사 성적을 실시하여 하계되며 전강력 의 내용은 황달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가? 수혈이나 주사를 맞은 적이 있는가? 최근 위장관의 증세가 없었는가? 피로와 체중 감소는 없었는가? 등의 질문이 대단히 질병에 대한 알시성이 높은 질문이 될 것이다.

또한 계속 질문을 할 경우 최근에 수술을 받았는가? 약물에 증독성이 있는가? 치아를 치료한 적이 있는가? 침을 맞은 적이 있는가? 담배/음식에 대한 혐오가 있는가? 대소변의 색깔 변화는 없는가? 등도 유의한 질문이다.

신체검진으로서는 39°C 정도의 열, 간장의 비대, 붉은 반점, 관절통, 인후염, 피부에 쉽게 멍드는 증세등을 중심으로 한다.

이 시기는 보전 간호원이 돌보는 시기이나 곧 입원가료를 요한다. 병의 양상을 조기에 찾아내고 의심스러우면 의사에게 곧 알리고 치료하도록 의뢰한다.

이때의 간호계획은 가족 및 환자교육(손씻는 기술, 간단한 격리술, 일회용 접시, 별도의 수건사용, 정확한 쓰레기 처리법, 내의·홀아불등의 격리 세탁, 환자와의 접촉 피할을 포함한다)과 또 다른 하나의 문제인 피로감과 식욕부진에 대한 계획 및 수행으로서 고열량 식이, 균형잡힌 식사, 적은양 자주 먹기, 절대안정, 힘드는 육체운동을 삼가하는것 등을 포함한다.

#### 제 3 단계 간호

이 시기는 병원입원기간 동안의 환자 간호를 말하며 환자는 대개 급성으로 입원하게 되고, 구토, 수분 및 전해질 불균형을 호소하며 황달이 있는 시기로서 이때 간호사정은 간호력으로서 주로 전구기때와 같다. 그외 소변 및 대변 색깔의 변화, 소양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황달이 급격히 나타난 이후에는 관절통, 인후염, 열이 있으며 rash의 소실 이후에도 A형 간염과는 달리 전신편태는 계속된다.

이때 신체검진은 전구기 증상 이후 1주경에 나타나는 공막에 황달과 복부검진시 간의 크기가 감소되며 비장은 커지고 postcervical lymph

node가 커지는 것이다.

이 시기의 간호문제는 지속적인 전신권태, 식욕부진으로 인한 영양문제, 황달전구주와 후 3주에 감염성이 높기 때문에 감염의 전파방지, 심한 황달에 기인한 심리적 저항감 및 불안감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간호계획은 안정과 활동의 계획을 적절히 하는 것, 비타민 B를 특별히 보충하는 식이와 고열량단백식이, 적절한 수액유지, 감염전파방지를 위한 격리간호, 가족과 간호팀의 지지적 간호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 제 4 단계 간호

이 시기의 간호원의 역할은 간장세포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는데 역점을 두며 후후간호를 잘 하도록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간호를 시행한다. 즉 6~8개월의 긴 회복기간 동안 균형이 잘 잡힌 식이, 매일 매일의 적당한 운동으로서 환

자가 피곤을 느끼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운동, 퇴원후 3주간은 매주 병원을 찾고 그 이후에는 증상이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 3개월에 1회 정도 병원에 와서 건강평가를 받는다.

효소검사는 환자가 정상으로 회복된 후에도 6주간 반복 검사를 받아야 되며 효소치가 정상으로 올 때까지 식당에서 매식하는 일을 금하고, 공혈하지 않게 하며 술잔을 돌린다든가 식사시 함께 그릇을 사용한다던지 하는 가까운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B형 간염에 대한 면역은 일생동안 자기 때문에 일단 간염에 걸리면 완전히 회복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계속 보균자가 되어 자신의 건강회복이 늦어지고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㉞

지 키 자 가 정 의 례

버 리 자 허 례 허 식